

북한과의 대화에 분위기 제압 필요 - 전문가

히토시 타나카 브뤼셀 (IPS 아시아-태평양) - 지난 수년 동안 주요 국가간의 “단결 결여” 및 견해 차이로 인해 10월 북한의 지하 핵실험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평양 협상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남게 되었다.

스탈린 주의 국가에 관한 일본인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은 지난 15년 동안에 걸친 국제적 노고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예측했다.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 일본 외무 차관 히토시 타나카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가의 대외 정책에 관한 최근 세미나에서 질문했다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관련 국가사이에서 그리고 관련 국가내에서 일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서로 다른 관심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녔다.”

“이러한 점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여러가지 선택권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다,”고 유럽 정책 센터 및 사사카와 평화 재단이 개최한 브뤼셀 ‘아시아의 목소리’ 세미나의 연설자인 타나카가 덧붙였다.

“이제 관련 국가들, 특히 6자 회담 5개국간의 완전한 단결이 요구된다,”고 일본 국제 교류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타나카가 강조했다. “세계는 핵으로 무장하는 북한과 공존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능력은 동 아시아의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나카는 2002년 논란이 일었던 일본 총리의 방문 이전에 1년간 북한과 협상했다.

2005년 9월에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및 러시아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과 협의를 맺었다. “하지만 현재 핵실험이 시행되었다,”고 타나카는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시스템을 서서히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유럽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럽 연합에 대한 우려 사안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테헤란 정부가 평화적 목적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워싱턴이 이끄는 국제 공동체가 국제적인 위협이라고 일축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사안과 같은 기타 국제적인 난제와 연루되어 있다.

“이는 이란 문제에 관해 명백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타나카는 말을 이었다.

NPT 공동-조약 가맹국인 이란은 은밀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에 의해 의심받아 왔다. 2006년 12월 23일, UN은 이란에 대한 제재 조취를 취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간의 통신 회선이 가능하므로 강력한 발언으로 “북한이 일본, 미국 그리고 지역의 다른 국가가 지닌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할 것을 타나카는 강조했다.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한 “저지”의 형태로서 우발사태 대비가 요구된다. “북한 정부 지도자는 모든 사항을 전장 전술에 호소해 결정하여 수많은 계산 착오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세계는 기억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 그들은 고립되어 있어 바깥 세상을 대단히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은 힘으로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가지 취약점은 미국 정부내에서 대외 정책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으로, 미국 정부의 관심은 중동 지역에서도 이라크로 완전히 비틀려 있다. 워싱턴의 강경론자들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에서는 한반도 전쟁은 타격이 크므로 평양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둘 경우에만 통합된 강력한 정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 문제는 “길고도 힘든 과정”이 될거라고 타나카는 냉철하게 시인한다. “1~2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관련

한편, 타나카는 일본-중국 관계에 있어 해당 국가들은 국가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양국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관계가 아닌, “강대국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타나카는 설명했다.

지난 25년간 중국이 이룬 연 9.5%의 활기찬 성장률로 볼 때, 10년 내에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0년대 까지, 일본은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2번째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코 앞에 거대 성장을 이룬 중국이 있다.”

게다가, “현재, 일본에게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능가하는 가장 광범위한 무역 관계가 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동 아시아 두 강대국 간의 동등한 상호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 하나가 역사 문제이다. 30 년대 중국과 한국에 저지른 일본의 잔학 행위가 절대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타나카는 강조했다. “하지만 영원히 이러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 문제를 정치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 문제는 이에 합당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촉구했다.

그는 보안 정책과 관련해, 양국의 상호 투명성을 약속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에너지와 개발에 있어 “실제적이고, 솔직한 협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은 중국에, 중국은 일본에 서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현상태로는 동 아시아 공동체 구축이 향상될 수 없다.”고 타나카는 말했다 (끝)